

시청각 교육에 있어 설득 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

-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을 중심으로 -

The basic study on the need of persuasive strategy in audio-visual education

- Centering around the traffic safety education using video media -

우 경 훈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예술공학과 박사과정

Woo Kyung-Hoon

Sogang university

1. 서 론

2. 시청각교육의 이해

- 2-1. 시청각교육의 개념 및 등장배경
- 2-2. 시청각교육매체로써 영상매체의 특성
- 2-3. 시청각교육의 원조 : 멘탈 하이진 필름(Mental hygiene film)

3. 시청각교육에서의 설득 전략

- 3-1. 설득의 기본, 고착성
- 3-2. 감성을 이용한 설득

4.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의 실태

- 4-1. 한국의 교통안전교육 실태
- 4-2. 미국의 교통안전교육 실태

5. 설득 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 5-1. 조사 설계
- 5-2. 설문지의 신뢰도
- 5-3. 조사 결과

6.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현대사회가 정보의 범람 속에 기상천외한 영상물이 웹 페이지를 가득 채워 웬만한 영상물은 관심 끌기조차 어려운 정보화시대임을 감안할 때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도 변화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 설득 전략을 가미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시청각교육의 개념, 특성 등과 시청각교육의 원조격인 멘탈 하이진 필름(Mental hygiene film)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시청각교육에서의 설득 전략으로써 사용 가능한 심리학적 기제에 대해 고찰하였고,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의 현주소를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그 실태 파악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 설득 전략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헌연구 결과 설득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선제 작업으로서 고착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감정요소에 기초한 감성적 소구를 활용한 감성 설득 전략은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실증연구 결

과 시청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교육만족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구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공포감을 주는 시청각교재보다는 좋은 느낌을 주는 시청각교재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는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를 설득 전략을 구사하여 제작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시청각 교육, 교통안전교육, 설득 전략

Abstract

The audio-visual textbook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need the change given ordinary video contents are hard to attract the attention because extraordinary contents are too many in the overflowing of information. The study researched the notion and feature of audio-visual education and mental hygiene film which was the originator of audio-visual education to add the persuasive power to the audio-visual textbooks for traffic safety education and compared Korean traffic safety education using video media with American one and psychological elements as a persuasive strategy of audio-visual education. And it surveyed whether the persuasive strategy was needed to audio-visual textbooks for traffic safety education by researching the sample set which consisted of different ages. It found the measure of boosting adherence necessary and the emotional persuasive strategy epoch-making. However,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ow educational satisfaction,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education recipients by age. And recipients preferred good sense of audio-visual textbooks rather than fear ones. These results have to be importantly considered in making audio-visual textbooks for traffic safety education.

Keyword

audio-visual education, traffic safety education, persuasive strategy

1. 서론

시청각교육은 영화, 슬라이드, 라디오, 녹음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시청각매체를 활용하여 눈과 귀의 감각기관을 통해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공학의 한 방법이다. 언어편중의 문헌 중심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시청각교육은 과학, 기술의 진보와 함께 관찰, 실험, 조작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교육현장에서 시청각자료의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강철, 2008; 서현아, 이송학, 2002).

이러한 시청각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도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지금은 교육계에서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 보편화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에 있어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교통안전교육 커리큘럼에 시청각교육은 필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추세이다.

교통안전교육에 있어 시청각교재의 역할은 다양한 시청각물을 활용하여 피교육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보다 덜 지루해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통안전의 확보를 통해 인명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효과적으로 익히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 web 2.0 시대를 맞아 누구든 데이터를 조작하여 훌륭한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환경 속에 노출되면서 단순한 구조의 시청각교재는 더 이상 피교육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범람 속에 기상천외한 영상물이 웹 페이지를 가득 메워 웬만한 영상물은 관심 끌기조차 어려운 시대임을 감안할 때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도 변화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실 본 연구자는 미국 뉴욕주에서 2000년부터 6년간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당한 교통사고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의 현실을 체험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 참석한 운전자교육과정 중에 교통안전에 관한 시청각교육이 있었는데, 여기서 상영된 영상물은 그 주제와 내용이 일반적 교재가 갖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루하기 짝이 없었고 태도 변화에 아무런 동기도 부여하지 못하였다. 한국에 귀국하여 또 다시 참석하게 된 한국의 운전자교육과정 중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청각교육 역시 미국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시청각교재는 시청각매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 강사에 의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훨씬 교육적 효과가 클 수도 있는데, 왜 교통안전교육에 참석한 본 연구자는 교육용 영상물을 시청하고도 교통안전에 관한 태도 변화의 동기를 부여받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답을 본 연구자는 설득 전략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한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은 예산, 인력 등의 이유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청각교재로써 오래 전에 제작된 영상물 또는 오래 전 제작양태를 그대로 답습하여 제작된 영상물을 사용하거나 제작의도가 다른 방송국 영상물을 가감 없이 복사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전략 부재의 교재로는 교통안전교육에 참석한 피교육자들이 교통사고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공포를 느끼거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오래된 운전 습관 및 태도를 원천적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 운전 습관 및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는 동기 부여를 위한 설득 전략이 구사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와 관련된 선행연구 실적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시청각교재의 설득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 설득 전략을 가미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시청각교육의 개념, 특성 등과 시청각교육의 원조격인 멘탈 하이진 필름(mental hygiene film)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시청각교육에서의 설득 전략으로써 사용 가능한 심리학적 기제에 대해 밝히고,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의 현주소를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 설득 전략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적-실증적 접근, 교육-심리학적 접근, 한국-미국의 비교법적 접근의 다층적 연구 방법의 조합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 설득 전략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띠는데, 본 연구 결과 설득 전략이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 필요한 것이며,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입증된다면,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설득 전략을 개발, 가미하여 현재의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리디자인(redesign)하여 교재개발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시청각교육의 이해

2.1. 시청각교육의 개념 및 등장배경

시청각교육은 다양한 시청각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감각기관, 특히 눈과 귀를 통해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육방법을 일컫는다(권성호, 1998). McClusky(1949)는 시청각매체의 다양성에 기초해 시청각교육을 정의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기술적인 의미에서 시청각교육이란 교사가 눈과 귀를 통해서 사상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화, 슬라이드, 라디오, 녹음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고안물들을 지칭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시청각교육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chart, diagram, 모형, 실물 포스터, 사진, 표본 및 게시판 등의 사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청각교육은 활용되는 매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개념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청각교육으로 개념을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시청각교육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17세기 이후 교육사상과 방법은 언어편중의 문헌 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교육의 목적과 내용도 크게 달라져 학습의 방법으로는 글 읽기와 외우기가 아니라 관찰, 실험, 조작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이 요구되었다(대학시청각교육연구회, 1995).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는 시각 및 청각교육매체를 자유로이 사용하는 교육운동의 확산을 가져왔고, 급기야 1935년을 전후하여 시청각교육을 탄생시켰다.

2.2. 시청각교육매체로써 영상매체의 특성

시청각교육매체로써 영상매체가 갖는 교육적 특성 내지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대학시청각교육연구회, 1995).

첫째,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된 의미나 내용을 제시한다. 슬라이드나 투시자료 등도 사상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으나,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결국 원인→과정(상태)→결과라 하는 일련의 흐름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해서 가장 현실에 가까운 형태로써 하나의 완결을 가지고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사상이나 현상에 포함되는 시간적인 요소를 제어해서 표현, 제시된다. 느린 변화나 빠른 동작 등

을 미속(微速)촬영이나 고속촬영의 기법으로 알기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너무 느려서 관찰할 수 없는 식물의 성장과정이나, 너무 빨라서 인간의 눈에 잡히지 않는 동물의 운동 등을 알기 쉽게 제시하여 준다.

셋째, 실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시한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확대하여 그 생태를 관찰할 수 있으며, 너무 멀어서 볼 수 없는 천체 등을 보여 주는 등 교육목표에 알맞게 마음대로 확대·축소하여 보여 준다.

넷째, 먼 곳의 것을 교실 내로 가져다준다. 우리가 쉽게 가보지 못하는 달(月) 같은 곳이나 먼 나라의 풍속, 경치 등을 실지 촬영에 의한 영화를 통해서 교실 안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다섯째, 현실을 재구성해서 알기 쉬운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현실의 사상을 대상으로 한 직접경험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사상은 복잡한 요소 및 불필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영화는 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데 따라 그의 사상의 본질을 학습자에게 알기 쉽게 표현, 제시할 수 있다.

여섯째,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암실에서 스크린에 투영된 화면의 끊임없는 변화활동은 학습자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며 강렬한 경험을 주며 깊은 감정의 유발력까지 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에게 공통경험을 준다. 영화에 따른 제시는 문자 등에 따른 제시와 비교해서 개인차를 축소시키고 공통적인 경험이나 이해를 줄 수 있다.

요컨대 시청각교육매체로써 영상매체는 현실에 가까운 움직이는 영상의 제공, 시간적인 요소의 가미, 실물의 확대 및 축소 가능, 각종 피사움직이간접체험적이용이성, 현실의 재구성, 높은 주의 집중력 및 공통경험의 제공이 가능한 구성, 높은을 가지고 있다.

2.3. 시청각교육의 원조 : 멘탈 하이진 필름

멘탈 하이진 필름¹⁾은 미국에서 현재의 시청각교육의 오래된 선배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다. MHF는 1940년대부터 고등학교의 의무적인 커리큘럼의 하나로 정신 교육 목적에 사용되었는데, 그 주제는 자동차 운전, 섹스, 마약, 임신 등 다양하였다. 1970년대 이후 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해 MHF는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이란 평가

1) 본 논문에서는 이하에서 멘탈 하이진 필름(mental hygiene film)을 편의상 "MHF"라 표기한다.

에 시달리며 사라지게 되었다.

MHF의 제작목적 및 시청대상, 시청자들의 반응 등에 대해서는 Ken Smith(1999)가 저술한 「Mental Hygiene: Classroom Films 1945-1970」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MHF의 제작목적부터 우선 살펴보면, 이것은 올바른 사회적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교재로서 제작되었다. MHF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고, 주로 어른들에 의해 더 낫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MHF는 종종 매우 좁은 범위의 행위에 일치시켜 그것을 옳은 행동이라 가르치기도 하였다. MHF 제작이 활발하던 당시에 미국 학교에서 수 백 만의 학생들이 MHF를 학교 정규 커리큘럼의 과정 속에서 교실에서 이를 시청하였다. 당시 MHF 제작에 열을 기울이던 교육정책 당국의 관계자는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견지에서 MHF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토론의 촉진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MHF가 중국에 효과적이었느냐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당시의 순응적이고, 애국적이고, 종교적인 아이들과 대비되는 1970년대 이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MHF는 구시대적인 유물에 불과하였고, 어떠한 설득도 용납되지 않는 단순한 구조의 영상물에 불과하였다고 Ken Smith는 술회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MHF는 어떠한 영상을 제공하였는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도로에서의 안전에 관한 MHF 몇 편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Ken Smith(1999)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안전에 관한 MHF는 아이들을 위해서(딕 깨어라: 말하는 차²⁾), 보행자들을 위해서(당신이 보행자일 때: 죽은 권리³⁾), 자전거 운행자들을 위해서(자전거 어릿광대: 당신의 자전거를 타라⁴⁾), 성인들을 위해서(치명적인 순간: 죽기 위해 운전하라⁵⁾) 제작된 영상물이 있다. 도로 안전과 관련된 MHF에 주되게 등장하는 것은 음주운전의 사악함에 관한 것이나 학교 버스의 안전, 인형으로 하는 충돌 테스트의 고속도 촬영장면 등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도로에서의 안전에 관한 MHF는 '고통의 고속도로(1969)'⁶⁾나 '기계화된 죽음(1961)'⁷⁾이었다. 전자는 인위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솟구치는 신발, 찌그러진 트럭, 아스팔트 위의 사람들의 몸통들을 보여주었고, 후자는 두 명의 기병이 찌그러진 차를

살펴볼 때 한 죽어가는 여인이 그녀의 피로 낭자한 사고현장을 화면으로 보여주었다([그림 1] 참고⁸⁾).



[그림 1] '기계화된 죽음(1961)'의 일부 화면

출처 : Ken Smith.(1999). 'Mental Hygiene: Classroom Films 1945-1970'.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참혹한 현장은 당시 MHF를 시청한 아이들에게 공포와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공포에 가까운 MHF가 다수 제작, 보급되면서 이에 노출된 아이들은 더 이상 공포에 휩싸이거나 경각심을 갖거나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있어 MHF의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것들이었고, 그 형식은 이미 어디선가 본 것들이었다. 그런데 MHF의 문제는 1970년대 아이들의 외면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1970년대 아이들조차 외면한 이런 단순한 구조의 영상물이 지금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 논고 준비를 위해 사전조사 차 2001년 당시 미국 뉴욕주에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영상물 여러 편을 수집해서 시청하였는데, 이 중 다수가 MHF이거나 MHF 여러 편을 하나의 영상물로 편집, 제작한 것들이었다.

3. 시청각교육에서의 설득 전략

3.1. 설득의 기본, 교착성

시청각교재가 지향하는 소정의 교육목적에 맞게 피교육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청각교재가 제공하는 영상에 몰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영상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피교육자들에게 설득의 전

2) 원제는 "Dick Wakes Up; The Talking Car"이다.
3) 원제는 "When You Are a Pedestrian; Dead Right"이다.
4) 원제는 "The Bicycle Clown; Drive Your Bicycle"이다.
5) 원제는 "Fatal Seconds; Driven to Kill"이다.
6) 원제는 "Highways of Agony"이다.
7) 원제는 "Mechanized Death"이다.

8) 이 그림 capture는 Ken Smith가 1999년 저작한 저서 「Mental Hygiene: Classroom Films 1945-1970」의 80-81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

락을 구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Malcolm Gladwell(2009)은 이러한 영상에의 몰입을 '고착성'이라 표현하였다.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티핑 포인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메시지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자질은 고착성이다. 메시지가 기억할 만한 것인가? 그 메시지가 그토록 기억할 만한 것이라면 사실상 그런 메시지는 그 자체로 변화를 창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행동하도록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말콤 글래드웰, 2009). 그는 고착성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에서 방영된 어린이용 TV프로그램이었던 <세서미 스트리트>와 <블루스 클루스>의 사례를 들어 역설하였다.

Malcolm Gladwell에 따르면, 바보상자인 TV를 훌륭한 학습도구로 승화시킨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미국 어린이용 TV프로그램은 독특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만약 어린이들의 관심을 붙잡아둘 수 있다면 그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다는 독특한 통찰에서 착안되었다. 일반적으로 TV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어 TV 비평가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TV를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TV 시청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흡수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계속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학습도구로서의 TV의 용도에 관한 연구 전문가인 오레곤 대학의 심리학박사 Edd Palmer는 학문적으로 조연해 준 사람들에 의해 정교하게 고안된 <세서미 스트리트>의 교과 과정이 시청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그는 '디스트렉터(주의분산장치)'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TV 모니터를 보면서 <세서미 스트리트> 에피소드를 연출했다. 그리고 모니터 옆에 있는 스크린 위에 슬라이드 쇼를 내보냈는데, 거의 7.5초마다 새로운 슬라이드로 바꿨다. 그는 <세서미 스트리트>를 보는 아이들이 흥미를 언제 잃어버리는지, 언제 슬라이드 쇼를 바라보는지 일일이 기록했다. 이를 통해 에피소드 중 어떤 부분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었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못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으므로, 디스트렉터는 고착성 유발 기계였다. 1960년대의 산물이었던 <세서미 스트리트>의 신화를 이은 것은 잠재된 고착성 향상의 결정판이었던 <블루스 클루스>라는 TV프로그램이었다. 1996년 방송된 <블루스 클루스>는 <세서미 스트리트> 이후 30년이 지난 뒤의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작동시키는 데 적절하게 고안되었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마음에 드는 것을 목적

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 프로그램에는 '어른스러운'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고, 그러한 요소를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이들의 신경을 분산시켜버렸다. 결국 최고의 고착력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블루스 클루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요컨대 <블루스 클루스>의 고착력의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에 있었다. 첫째,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블루스 클루스>는 어린이들에게 수수께끼를 제시하고 답을 알아맞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마리를 제시하여 참여를 유도했다. 둘째,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블루스 클루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같은 에피소드를 방영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반복을 지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복을 통해 주의력과 이해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블루스 클루스>는 답을 알아맞힐 수 있는 실마리들을 적절한 순서로 배열해 놓았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배열해 놓음으로써 어린이들의 도전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말콤 글래드웰, 2009).

이와 같이 Malcolm Gladwell이 주장하는 고착성에 관한 언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최우선적으로 피교육자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는 주된 관심사, 참여 동기, 기대하는 교육효과 등 전반적인 교육욕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김미영(2008)의 연구에서도 교통안전교육 실시 전 주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블루스 클루스>의 고착력의 핵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교육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실제 교통안전교육 시 시청각교육은 피교육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영상물의 수동적인 시청으로 끝이 난다. 시청한 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교육강사와의 상호작용은 없으며, 영상물 자체가 피교육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청각교육에서 소정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고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3.2. 감성을 이용한 설득

Pratkanis와 Aronson은 그들의 저서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전략」에서 설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하였다. 설득은 잘 이용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만, 설득 지식이나 테크닉의 남용은 왜곡된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양산해 내

편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안토니 R. 프랫카니스, 엘리엇 아론슨, 2005).

Pratkanis와 Aronson은 그들의 저서에서 특별히 어떤 설득 기법들이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 활용 가능한 설득 전략으로 '감성을 이용한 설득'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의 도로 안전에 관한 MHF가 극도로 혐오스럽고 공포화 된 장면을 노출시켰지만, 시청자들의 운전 태도와 습관 변화에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인 Richard Wayman은 1959년 고속도로 왕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실제 장면을 가감 없이 촬영하여 35분짜리 영화로 만들었다. 이 영화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Signal 30"이다. 이 영화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고, 죽어가는 사상자들이 만들어내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Richard Wayman의 후속작이 앞서 살펴본 '기계화된 죽음(Mechanized Death(1961))'이다. 그러나 Richard Wayman이 1970년대까지 끊이지 않고 만들어낸 피비린내 나는 안전 영화는 1970년대 이후 더 이상 주목을 끌지 못했다(Ken Smith, 1999).

Richard Wayman의 피비린내 나는 안전 영화가 현재 시점에서 통용될 수 없는 이유는 Pratkanis와 Aronson이 주장하는 '위협 소구'의 개념과 관련 있다. '위협 소구'란 공포의 메시지를 통해 소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소구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욕구나 욕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을 말한다(Wells et al., 1995). 이 같은 위협 소구에 의한 설득은 너무 강한 공포를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설득 효과를 떨어뜨리게 한다(안토니 R. 프랫카니스, 엘리엇 아론슨, 2005). 이것은 교육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처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비판하고 욕박지르기 보다는 부모가 화난 이유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위협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기초한 위협 소구의 설득 전략보다는 사람들의 긍정적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을 이용한 설득 전략이 보다 유용하다는 것이다(안토니 R. 프랫카니스, 엘리엇 아론슨, 2005).

최근 감성을 이용한 설득 전략은 기업의 이미지 전략과 맞물려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뛰어난 것이 입증되었다. 예컨대 스타벅스의 커피숍, 마쓰다의 자동차, 스티브 잡스의 애플 제품 등은 감성을 이용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를 설득하여 제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일련의 경영활동을 펼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렇다면 감성을 이용한 설득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감성적 소구는 직접적으로 소구를 불러일으키는 매개물의 특징을 강조한다거나 행동을 촉구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뢰감과 긍정적 인상을 심겨주는 설득 전략이다. 이러한 감성적 소구는 모험, 유머, 로맨스, 성, 지우, 감정적 유대 등의 강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안토니 R. 프랫카니스, 엘리엇 아론슨, 2005). 감성적 소구의 효용성과 관련해 김효성(2002)은 화장품 잡지 광고의 전체적인 광고 소구 유형의 사용 빈도에 대해 이성 소구보다는 감성 소구가 더 많이 사용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요컨대 긍정적인 감정요소에 기초한 감성적 소구를 활용한 감성 설득 전략은 공포감에 기초한 위협 소구를 이용한 설득 전략이나, 이성적 판단에 기대는 설득 전략보다 우수한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논제인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설득 전략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예시로 제시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는 모두 공포감의 고조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위협 소구에 기초한 설득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것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함은 MHF의 몰락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피교육자들의 긍정적 감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토대로 구성, 제작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는 분명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4.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의 실태

본 장의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의 실태는 연구자가 실제 이러한 교육을 체험한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4.1. 한국의 교통안전교육 실태

교통안전교육은 교육적 수단을 이용하여 인명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익히게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유미, 2008).

따라서 교통안전교육의 목적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지식과 태도를 익히는 데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은 미래의 교통문화를 주도할 학생들에게도 행해지지만, 주된 교육대상은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와 예비운전자들이다. 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경찰청(2008)의 최근 통계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2007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94.2%가 운전자 법규 위반에 의한 사고였다.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자동차 자체나 보행자라기보다는 운전자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은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9845호)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재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 별점을 감점 받고자 하는 경우, 운전면허응시 전 교육 등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교육의 커리큘럼은 교통안전교육기관⁹⁾ 및 피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운전 방법 및 예절, 교통사고처리방법,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학과시험 응시 전 교육의 경우에는 3개 강의를 60분씩 총 180분에 걸쳐 실시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교시에는 시청각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김미영, 2008). 이 시청각교육은 안전운전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실시되는 교통안전교육에 활용되는 시청각교육의 교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적 측면에서 제작·보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로 보급된 영상물은 3편에 불과하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시청각 교재	0편	1편	1편	0편	1편	3편

[표 1] 연도별 교통안전교육용 교재 제작·보급 실적
출처 : 건설교통부.(2007).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07'. p. 81. 재인용.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안전교육용 시청

각교재의 질적 수준이다. 연구자가 각 교통안전교육 기관에 요청하여 입수한 4점의 영상물을 검토한 결과 모두 공중파 방송사가 제작한 영상물을 피교육자들에게 그대로 상영하고 있었다. 공중파 방송사가 제작한 영상물은 그들의 특정 제작의도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컨대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KBS 방송국의 자체 TV프로그램인 'KBS스페셜'에 방영된 영상물을 시청각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KBS스페셜'은 기획의도가 '다큐멘터리프로그램을 통한 세상보기'라는 점(KBS 홈페이지)에서 단순히 즐거리가 있는 기록물에 불과하다.



[그림 2]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시청각교재로 활용된 'KBS스페셜' TV프로그램

출처 :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ktec.or.kr>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안전교육의 목적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지식과 태도를 익히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재구성한 단순한 기록물에 불과한 영상물이 운전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태도나 습관을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원빈(2006)은 교통안전참여교육에 참가한 피교육자 3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희망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청각교육이 7.7%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교육 영상물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황윤상(2007)은 피교육자가 요구하는 교육욕구를 고려한 시청각교재의 제작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가 교통안전교육의 소정 목적에 맞게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본 연구의 논제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9) '교통안전교육기관'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운전면허관리기관, 시·군·자치구 운영 교육시설로 되어 있다.

4.2. 미국의 교통안전교육 실태

연구자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0년부터 약 6년 간 미국 뉴욕주에서 유학할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 조사한 교통안전 당국 관계자와의 인터뷰 자료와 최근 미국의 뉴욕주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교통안전교육¹⁰⁾ 관련 웹페이지에서의 수집 자료를 통해 미국의 교통안전교육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2001년 당시에는 운전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 보험회사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되었다.

한편 미국 뉴욕주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연령, 목적(영업용 또는 자가용) 등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다양한데, 본 논문에서는 자가용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규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절차 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뉴욕주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신규 운전자는 운전면허 교육수강 신청 후 시력검사(vision test)와 필기시험(written test)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road test)을 위한 연습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다음 단계가 교통안전에 관한 시청각교육이 포함된 전반적인 운전자 교육 과정(driver education course)의 이수이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뉴욕주의 운전면허(NYS driver license)를 취득하게 된다(NYS DMV 홈페이지).

이 같은 뉴욕주의 운전면허 교육수강 과정에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의 시청각교재는 뉴욕주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공인한 NYSP(New York Safety Program)라는 기관의 주도 하에 제작, 보급된다. 이렇게 제작, 보급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는 보험회사와 같은 안전교육기관을 통해 피교육자들의 안전교육에 활용된다(NYSP 홈페이지).

그런데 이 NYSP에서 제작, 보급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는 앞서 언급한 멘탈 하이진 필름의 질적 수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즉, 안전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통사고의 참사를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NYSP의 시청각교재는 걱정한 설득 전략

의 부재로 피교육자들이 스스로 안전운전의 태도나 습관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그림 3]은 음주운전에 관한 NYSP의 시청각교재의 일부 화면을 본뜬 것이다.



[그림 3] NYSP 음주운전 관련 시청각교재
출처 : NYSP 제작 비디오영상물(연구자 소장물)

[그림 3]의 맨 위 좌측 화면부터 살펴보면, 이 영상물은 NYSP에서 제작, 보급한 음주운전에 관한 것인데 자전거 운행자인 소년이 음주한 여성의 차량에 치여 자전거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고, 그녀의 자동차는 시골길 풀밭에 곤두박질 쳐 있는 장면이 연출된다. 그리고 난 후 소년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며, 음주여성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년의 부모들의 침통해 하는 모습과 감옥에 갇힌 음주여성운전자의 고백을 듣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태의 NYSP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는 음주운전을 하면 타인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 머무른다. 이 영상물은 음주운전을 하면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자신과 타인에게 생길 수 있

10)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교통안전교육 실시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대신 주정부 단위로 설치된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 주관 하에 사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을 통해 유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연구자 주).

음을 알려주는 하나, 피교육자들 자신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정말 우연한 사고 정도로 여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피교육자들은 시청각교실을 나서는 순간 영상물을 통해 간접 체험했던 경각심을 서서히 잊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NYSP의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의 무용성(無用性)은 뉴욕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현황을 통해서도 쉽게 입증된다. [표 2]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뉴욕주 음주운전사고 현황을 사망사고, 부상사고, 기타사고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인데, 사망사고, 부상사고의 경우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사고는 2007년을 5년 전과 비교할 때 1,702%나 급증하였다. 요컨대 NYSP의 시청각교재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교통안전교육의 소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시청각교재를 제작,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망사고	321	256	332	350	359	344
부상사고	5885	5395	5327	5270	5111	4991
기타사고	230	24	53	156	2489	4145
합계	6436	5675	5712	5776	7959	9480

[표 2] 뉴욕주 음주운전사고 현황(2002-2007년)
주) '기타사고'는 신고의무가 있는 재산상 피해 사고를 말함
출처 : 뉴욕주 DMV(<http://www.nydmv.state.ny.us>)

5. 설득 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5.1. 조사 설계

5.1.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인식조사 대상은 국내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인구 집단에 속한 사람이다. 서울시 소재 교통안전교육기관 몇 곳의 협조를 얻어 시청각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한해 가용표집방법을 통해 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 10. 19.부터 10. 24.까지 6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182부였으며, 이 중 표기 누락이나 오기가 있는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169부만을 최종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5.1.2. 설문지의 구성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의 설득 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의 인식조사의 설문문항은 본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설문문항

은 [표 3]에서와 같이 크게 4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

구분	설문내용	문항형태
기초 인식	시청각교육의 필요성, 만족도	폐쇄형
고착성	교육대상자의 구분 교육의 필요성	폐쇄형
	강사와의 상호작용의 필요성	
감성설득전략	공포감을 주는 시청각교재의 필요성	폐쇄형
	좋은 느낌을 주는 시청각교재의 필요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폐쇄형

[표 3]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첫 번째 영역은 시청각교육에 관한 기초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청각교육의 필요성과 시청각교육 이수 후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고착성에 관한 설문으로 교육대상자를 일정한 교육욕구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시청각교육 실시 후 영상물의 내용에 관해 강사와 토론 등의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묻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감성설득전략에 관한 설문으로 공포감을 주는 시청각교재와 행복, 즐거움, 만족 등과 같은 좋은 느낌을 주는 시청각교재 각각의 필요성을 묻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으로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성별을 묻도록 구성하였다. 네 번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설문은 Likert 5점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필요하거나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불필요하거나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1.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에 의해 차이의 유의값이 있을 경우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5.2. 설문지의 신뢰도

기초 인식, 고착성, 감성설득전략과 관련한 각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표 4]와 같이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설문내용	CITC	제거 시 a계수
시청각교육의 필요성, 만족도	0.637	0.872
교육대상자의 구분 교육의 필요성	0.632	0.871
강사와의 상호작용의 필요성	0.635	0.871
공포감을 주는 시청각교재의 필요성	0.694	0.867
좋은 느낌을 주는 시청각교재의 필요성	0.641	0.870

[표 4] 설문지의 신뢰도

주) CITC =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5.3. 조사 결과

5.3.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은데, 연령의 경우 40대, 30대, 2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많았으며,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중이 높았다.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대	32	18.9
	30대	34	20.1
	40대	63	37.3
	50대	28	16.6
	60대 이상	12	7.1
성별	남자	112	66.3
	여자	57	33.7

[표 5] 표본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N=169

5.3.2. 기초 인식

시청각교육의 필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본 연구 표본집단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4.25(SD=1.074)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의 경우에는 평균 3.56(SD=1.210)으로 중간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M	SD
시청각교육의 필요성	4.25	1.074
시청각교육에 대한 만족도	3.56	1.210

[표 6] 시청각교육에 대한 기초 인식 분석 결과

N=169

5.3.3. 고착성에 대한 인식

고착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먼저 연령별 차이 비교 결과는 [표 7]과 같은데, 교육대상자의 구분 교

육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p=0.009(F=3.512)$ 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했다. 강사와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서도 $p=0.030(F=2.747)$ 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도출됐다.

교육대상자의 구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Duncan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60대 이상 보다는 20대·30대·40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사와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20대 보다는 30대·50대·60대 이상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대		30대		40대	
	M	SD	M	SD	M	SD
	50대		60대 이상		F	p
M	SD	M	SD			
구분교육의 필요성	4.47	0.896	4.44	0.892	4.43	1.039
	3.85	1.316	3.25	1.258	3.512	0.009***
상호작용의 필요성	2.50	1.732	3.89	1.368	3.39	1.453
	4.00	1.393	4.07	1.295	2.747	0.030**

[표 7] 고착성에 대한 인식의 연령별 차이 분석 결과
20대 N=32, 30대 N=34, 40대 N=63, 50대 N=28, 60대 이상 N=12

*<0.1 **<0.05 ***<0.01

다음 성별 차이 비교 결과는 [표 8]과 같은데, 고착성 인식에 관한 2개 설문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분	남자		여자		t	p
	M	SD	M	SD		
구분교육의 필요성	3.90	1.294	3.95	1.301	-0.216	0.829
상호작용의 필요성	3.97	1.291	4.00	1.309	-0.126	0.900

[표 8] 고착성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자 N=112, 여자 N=57

*<0.1 **<0.05 ***<0.01

5.3.4. 감성설득전략에 대한 인식

감성설득전략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먼저 연령별 차이 비교 결과는 [표 9]와 같은데, 공포감을 주는 시청각교재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p=0.053(F=2.390)$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좋은 느낌을 주는 시청각교재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서도 $p=0.082(F=2.106)$ 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2개 설문 의 각 연령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공포감을 주는 시청각교재의 필요성보다는 좋은 느낌을 주는 시청각교재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20대		30대		40대	
	M	SD	M	SD	M	SD
	50대		60대 이상			
	M	SD	M	SD		
공포감교재 필요성	2.72	1.114	2.76	1.156	2.66	1.187
	2.19	1.210	1.83	1.115	2.390	0.053*
좋은느낌교재 필요성	3.63	1.212	3.82	1.403	3.68	1.189
	2.96	1.261	3.58	1.311	2.106	0.082*

[표 9] 감성설득전략에 대한 인식의 연령별 차이 분석 결과
20대 N=32, 30대 N=34, 40대 N=63, 50대 N=28, 60대 이상 N=12
* <0.1 ** <0.05 *** <0.01

다음 성별 차이 비교 결과는 [표 10]과 같은데, 감성설득전략에 대한 인식에 관한 2개 설문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구분	남자		여자		t	p
	M	SD	M	SD		
공포감교재 필요성	2.72	1.048	2.42	1.386	-1.436	0.153
좋은느낌교재 필요성	3.67	1.431	3.81	1.430	0.627	0.532

[표 10] 감성설득전략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자 N=112, 여자 N=57
* <0.1 ** <0.05 *** <0.01

6. 결론

본 연구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에 있어 설득 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로 기초연구를 문헌연구와 실증연구의 병행을 통해 수행하였다.

문헌연구 결과 설득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선제 작업으로서 고착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교통안전교육 시 시청각교육은 피교육자의 전반적 교육욕구를 충분히 파악한 뒤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강사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피교육자들이 시청각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요소에 기초한 감성적 소구를 활용한 감성 설득 전략은 공포감에 기초한 위협 소구를 이용한 설득 전략이나, 이성적 판단에 기대는 설득 전략보다 우수한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는 피교육자들의 긍

정적 감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토대로 구성, 제작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연구 결과 시청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교육만족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구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공포감을 주는 시청각교재보다는 좋은 느낌을 주는 시청각교재를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는 교통안전교육용 시청각교재를 설득 전략을 구사하여 제작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철(2008). '문화: 문학 개념과 영화적 상상력' 교육현장에서의 시청각자료 활용 연구. 리시어어문학연구논집 28, 239-258.
- 건설교통부.(2007).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07. 과천: 건설교통부.
- 경찰청.(2008). '도로교통안전백서, 2008'. 서울: 경찰청.
- 권성호.(1998). '교육공학의 탐구'. 서울: 양서원.
- 김미영(2008).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 분석 학과시험 응시 전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 김효성.(2002). 기능성 화장품 광고의 광고소구 유형별 광고효과 차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학시청교육연구회(1995). '시청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출판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7). '여성운전자 교통사고 특성분석 및 안전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말콤 글래드웰(2009, 임옥희 역). '타핑 포인트. 과주: 21세기북스
- 서유미.(2008). 현장학습을 통한 유아의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안전 지식 및 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현아, 이송학.(2002). '유치원 교사의 시청각 교육매체에 대한 인식 수준과 활용 실태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6(2), 151-182
- 안토니 R 프렛카니스, 엘리엇 이튼슨.(2005, 윤선길 정기현 등 역).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원빈(2006). '참여교육효과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교수연구논문집, 2006(1). 서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황윤상.(2007). '운전면허 취소처분자교육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취소처분자교육 수강자를 중심으로'. 교수연구논문집, 2007(1). 서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Ken Smith.(1999). Mental Hygiene: Classroom Films 1945-1970. New York: Published by BLAST BOOKS Inc.
- McIlusky, F. D.(1949). Audio Visual Teaching Techniques.
- Wells, W., Burnette, J., & Moriarty, S.(1995). Advertising: Principles and practice(3th ed.). NJ: Prentice Hall.
-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ktec.or.kr>
- KBS 홈페이지, <http://www.kbs.co.kr>
- NYS DMV 홈페이지, <http://www.nydmv.state.ny.us>
- NYSP 홈페이지, <http://www.nysp.com>